

데스크시각



송기동 문화2부장·편집국 부국장

광주시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을 찾았다. 건물 바로 앞에는 금빛 흉상이 세워져 있다. '민족교육의 선각자' 그리고 '학산(學山) 윤윤기(尹允基) 1900~1950년'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측면에는 자필 한시 '북경을 넘나들며 시를 읊다'와 함께 연보가 새겨져 있다. 광주교대와 학산 윤윤기 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에서 2013년 10월에 세웠다. 순천시 연향동 블루시안 아파트와 팔마로 사이 근린공원에는 '순천가(順天歌)' 입체 조형물이 서 있다. "죽장망해(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호남 순천을 구경 가자..."로 시작하는 '순천가'는 장대와 옥천서원, 선암사, 천자암 등 순천의 주요 명소 40여 곳을 소개하는 판소리 단가이다. 노랫말을 지은 이는 순천 출신 벽소(碧笑) 이영민(李榮民 1882~1964) 선생이다.

사라진, 지워진, 잊혀진 이름들

두 사람의 이름은 일반인들에게 낯설다. 기자 역시 최근야 알게 됐다. 그만큼 이들이 매체에 노출되지 않은 탓이다. 두 사람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일제 강점기 '시대의 격랑' 속에서 교육과 농민·문화 운동을 통해 독립을 꾀한 독립운동가이다. 또 하나는 해방 이후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력과 사회주의의 사상을 지녔다는 이유로 해방 후 74년이 지나도록 국가로부터 독립 유공자 예우를 못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일제 맞서 교육·농민 운동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9년 4월 현재 독립 유공자는 모두 1만5511명이다. 3·1운동 5290명, 의병 2638명, 국내 항일 3324명, 만주 방면 2412명, 임시정부 1215명 등이다. 또 훈격별로 보면 건국훈장 1만965명(대만민국장 30, 대통령장 92, 독립장 821, 애국장 4323, 애족장 5699), 건국포장 1280명, 대통령 표창 3266명 등이다. 하지만 이는 일제 강점기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많은 좌익 계열 지사들을 제외시킨 숫자이다. 보성 출신 학산 윤윤기 선생은 전남 공립 사범대학(현 광주교대)을 마치고 교사 생활을 하며 우리말 사용과 우리 역사

교육, 문맹 퇴치 등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당시는 교직에 15년간 근무하면 은급(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1939년 창씨개명에 반대하며 학교를 사직했다. 그리고 이듬해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에 조선 최초의 무상 교육 기관인 '양정원(養正院)을 설립해 민족 교육을 실천했다. 해방 후에 학산은 풍양 여운형이 주도한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인 1950년 7월, 경찰에 끌려가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골짜기에서 원통한 죽음을 맞았다. 순천 태생인 벽소 이영민 선생은 교육 사업과 농민 운동, 청년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 기자이면서 시인이자 서예가였다. 40대에 동아일보 순천지국 기자로 활동하면서 박병두(조선일보 지국장), 이창수(시대일보 지국장) 등과 함께 지주들의 부당한 소자로 횡포에 맞서 소자정의 운동을 주도했다. 1928년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순천 조지 책임자라는 것과 '대한 독립운동자야 단결하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죄였다. 출소 후에는 조선 문화 말살 정책을 추진하는 일제에 맞서 '조선 성악 연구회' 결성에 도움을 주고 '순천가'를 창작하는 등 판소리 부흥에 힘을 기울였다. 그

러나 벽소는 정작 해방되고 나서 많은 고초를 겪었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치안 유지법에 의한 투옥자'로서 사찰 대상이 된 탄압에 시달린 것이다. 결국 고향을 떠나 광주 등지에서 은둔하다 1960년 병세 약화로 귀향했고 4년 뒤 세상을 떠났다.

이념 굴레 벗고 재평가를

학산과 벽소는 교육과 농민·문화 운동을 통해 일제에 항거했던 선각자였으며 진보적 지식인이었다. 두 사람의 치열했던 삶의 궤적을 '좌익'이라는 두 단어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제는 이념의 굴레와 족쇄를 풀어 주어야 한다. 벽소의 경우 국가보훈처는 두 차례 독립 유공자 신청서를 돌려보냈다. 두 번 모두 이유는 간단했으니 '활동 이후 행적 불분명', 아홉 글자뿐이었다. 이는 같이 활동했던 박병두(1883~1936) 선생이 지난 2005년에 독립 유공자(건국포장)로 추서된 것과 비교된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역사에서 지워진 또는 잊혀진 좌익 계열 광주·전남 독립운동가들 역시 명예 회복과 함께 이념의 잣대 대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할 때다.

/song@kwangju.co.kr

기고

산수유를 심으며 알래스카를 떠올린다



유두석 장성군수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했다. 720만 달러라는 가격표는 알래스카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치에 비하면 '헛값'이었다. 하지만 알래스카 매입을 최종 승인한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은 비난 여론에 휩싸여야 했다. '솔모없는 동토를 샀다'는 정치인들의 지적에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존슨 대통령은 주변의 비난을 묵묵히 감수했다.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끝끝내 관철시켰다. 자국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판단이었다는 확신에서다. 150여 년이 지난 지금, 알래스카 매입은 존슨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꼽힌다. 만약 지금까지 알래스카 땅이 러시아

의 소유였다면? 미국령의 거의 전 지역이 러시아 미사일의 반경 내에 들어있을 것이다.(미국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가정일 것이다) 알래스카는 미국을 방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다. 뿐만 아니라 석유를 비롯한 각종 천연자원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지난 29일 장성군은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우리군은 2015년부터 황룡강에 나무를 심고 있는데 올해는 산수유를 식재했다. 군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이는 알래스카 매입을 결정한 존슨 대통령을 떠올렸다. 그도 필경 나무 심는 의미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혼자만의 상상'을 해봤다. 나는 평소 우리 직원들에게 "한 그루의 나무도 많이 고민하고 심을 것"을 당부한다. 당연한 말이었지만 나무를 심을 때 '키 작은 묘목'만 봐서는 안 된다. 이 무가 성장하는 수년 뒤, 수십 년 뒤를 상상하면서 심어야 한다. 장성의 미래 모습과 잘 어울리는지, 생육에 지장이 있지는 않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나무 심는 일은 행정을 닮았다. 물론

당장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멀리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무를 심을 때처럼 미래에 끼칠 영향을 끊임없이 예측하고 고민해야 한다. '노란꽃 잔치'로 유명한 황룡강의 국가정원 지정 준비나 고려시멘트부지 개발을 계획하는 일이 그렇다. 장성호와 죽령산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국립심혈관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현재 장성에서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21일 준공식을 가진 장성군 공공 실버 주택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한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화의 인구 분포율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노인 인구는 지속속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노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장성군 공공 실버 주택의 준공으로 우리군은 독거노인 시설인 사랑의 집, 공립 노인 전문 요양 병원과 함께 '실버복지타운 1번지'를 완성했다. 장성군은 지자체 최초로 컬러 마케팅

기법을 적용, '엘로우 시티 장식'을 브랜드화하고 있다. 나는 황룡강에서 노란색과 장성군을 접목시키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황룡강은 '엘로우 시티'의 탄생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군은 2015년부터 황룡강변에 노란 꽃이 피는 나무를 심고 있다. 작년에는 겨울에도 노란 꽃을 볼 수 있는 황설리화를 심었다. 하지만 황설리화가 하천 주변에서 잘 자라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올해부터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산수유로 수종을 변경했다. 산수유의 꽃말은 '영원불변'이다. 고향 땅 장성군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꽃으로 핀다면 아마 산수유가 되지 않을까? 황룡면의 허름한 토담집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산수유 묘목을 조심스럽게 심으며 장성군의 미래를 만드는 사업들을 세워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이 있다면 지금 세워놓은 사업들로 인해 먼 훗날 장성군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한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매입한 알래스카처럼 말이다.

은펜칼럼

산다는 것



고성혁 시인

삶은 퇴화(退化)의 과정이 분명하다. 몸과 마음은 세월을 따라 고목처럼 늙는다. 깊은 산 속 고목을 본 사람들은 안다. 나무들이 바람과, 바람을 따라 부딪치는 비와 눈을 먹고 자라 고목이 된 뒤 끝내는 다시 그것들에 의해 넘어져 부서짐으로써 숲이 된다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진실된 삶의 과정이다. 나는 때로 죽어 넘어진 통나무처럼 드러눕는다. 바람부는 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지나온 삶을 반추한다. 가슴 가득히 후회를 안고. 그러면 다가서는 내 삶의 해거름 풍경이 뚜렷해진다. 철없던 젊은 시절 나는 어머니에게 정말로 고약하게 굴었다. 왜 나를 낳았냐고 대놓고 물었다. 무얼 하려고 낳아 남

침을 주시면 어머니. 돌이켜 보면 어머니의 죽음도 오래 전 떠나왔던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다. 어머니뿐 만 아니다. 이제 나도 수많은 고비를 넘긴 노년이 됐다. 나도, 그 누군가도 어머니처럼 돌아가야만 한다. 우리 동네에도 많은 노인들이 계신다. 많은 양반들이 늙고 병들어 몸을 움츠리고 산다. 할아버지 한 분은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보행을 하시는데 세월을 견뎌 온 만큼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었다. 지나치다 인사라도 건네면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옛 얘기를 건네지만 그건 걸일 뿐, 속은 마른 역새처럼 스산하다. 얼마 전부터 영감님은 다리까지 절뚝했다. 치료하시지 왜 그냥 계시냐고 물었더니 "늙어서 수술할 수가 없다. 대학병원에서도 기력이 달려 안 된다고만 하니 어쩔 수가 없네."라고 담담히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삶의 무력을 절절히 통감한 나머지 가슴이 아팠다. 허리가 아픈 할머니, 다리를 저는 할머니. 아프지 않은 노인이 없지만 그중 그래도 건강하다고 할 만한 할머니 한 분이 계시었다. 그 할머니는 봄에서 가을까지 세

카만 얼굴로 일일을 했다. 여름이면 길가 논에서 바지를 걷어 올리고 풀을 뽑기도 했고, 가을이면 가장 먼저 가을걷이를 했다. 푸른 고추모종을 건네주던 할머니의 불빛 속 파안대소가 미소를 짓게 했었다. 오늘 아침 고살을 나서는데 그 할머니, 보형 보조기를 짚고 먼 산을 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 망할 몸의 세월이 라니. 지난겨울의 모진 바람이 노인의 양상한 몸을 얼마나 할퀴었다던 말인가. 뜬금없이 산다는 것을 떠올렸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 삶은 덧없이 지나간다. 그러나 고목처럼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 부귀영화가 무엇이란 말인가. 불현듯 헛된 것도 모자라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 때문에 고통받아온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판 인간들이 떠오른다. 5·18을 두고, 4·3을 두고, 세월호를 보며 눈을 치른 버려지지만 못한 인간들. 그들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오신 위안부 할머니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부 바다 건너 사람들보다 무에 낫단 말인가. 오로지 세속의 욕구를 위해 쉬고 바꾸어 경박한 모욕만 아무렇게 내뱉는 그들에게 이 꿈같은 불빛이 너무나 아깝다.

社說

100일 앞둔 세계수영대회 빈틈없는 준비를

지구촌 수영 축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하계·동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와 함께 4대 대형 스포츠 행사로 꼽히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 인프라 확충과 개·폐회식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우선 마무리 단계인 다섯 개 경기장은 5월 중에는 모두 준공될 예정이다. 경영·다이빙 경기장은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관라석을 3393석에서 1만648석으로 늘려 주경기장으로 활용한다. 아티스틱 수영 경기장이 열리는 염주종합체육관도 개보수 중이다. 임시 수조 두 개를 설치하고 관라석을 5360석으로 늘린다. 광산구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사용하는 25개 동의 선수촌은 지난달 말 완공돼 현재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개회식은 '광주 정신', 폐회식은 '남도 문화'를 주제로 꾸며진다. 개회식은 광주여대 유니버시아

드 체육관에서 5·18 민주광장을 모티브로 한 '빛의 분수'를 주제로 700여 명의 예술인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진다. 입장권 판매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세계수영대회는 지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이어 4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매머드 국제 행사다. 당시 광주는 기존 시설 활용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흑자 대회를 이끌었다. 여기에는 시민들의 자원봉사가 큰 몫을 했다. U대회의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경기 시설과 운영, 선수·관람객 수용 등 각 분야에서 빈틈없는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란 대회 슬로건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북한의 참가를 반드시 성사시켜 평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 도시이자 민주·인간·평화 도시다운 알차고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광주만의 자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전라선 고속철화 정부의 전폭 지원 절실하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민선 7기 지역 최대 속원 사업은 무엇일까. 광주시는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남도는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내세우고 있다. 모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우선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와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등 미래 주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전남도 또한 수도권 유동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관광산업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라선 고속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강호축 국회 토론회'에 앞서 이들 속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호남·강원·충청 등이 포함된 '강호축'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8개 시도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

약인 빛그린산업단지, 에너지 밸리, 첨단 3지구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곳에는 광주형 일자리 등 미래 핵심 산업들이 들어서게 되는 데, 시는 오는 9월 개발 계획을 수립해 정식으로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안에 포함시켰다. 전라선은 전북 익산과 전남 여수를 잇는 노선으로 현재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고속철을 운행할 경우 30분 정도 단축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또한 국내·외 기업 투자 촉진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선 전철화는 경부선과 비교할 때 이 지역 철도 시설이 크게 낙후돼 있다는 점에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사업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無等鼓

국회가 또 시끄럽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언제쯤이나 국회가 정상화될지 걱정스럽다. 민생 법안은 뒷전인 채 선거제 개혁 등으로 맞붙었던 여야가 이번에는 '인사 청문회 후폭풍'을 맞으면서 3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로 막을 내릴 판이다. 여야는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힘대결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했고 최정호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 대

일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된다. 이 때문에 후보자 검증 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청문 결과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 인사 청문회법이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 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 중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필리핀 정도다. 미국의 인사 청문회 및 사전 검증은 매우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지명에 앞서 의회 지도자 등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기 때문에 인준 성공률이 99%나 된다. 이제 인사 청문회에 앞서 청와대는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후보자 검증을 꼼꼼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정책 역량과 전문성, 비전도 따져 봐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청렴 등 후보자들이 살아온 삶이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최권철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월 금 220-0515	문화사업 금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채부 220-0632	여론채부 220-0652	기획관 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